전남대생들 특별한 추모…"인벤할머니 고마워요"

별세한 서길자 할머니 분향소 마련

40년간 인문대 벤치에서 노점상
학생들에 빵·과일 등 무료 나눔
판매 수익 모아 장학금 기부도
5·18 땐 주먹밥 나눠주며 응원

전남대 '인벤할머니' 고(故) 서길자씨 생전 모습. 〈마을발전소 제공〉

40여년 동안 전남대 인문대학 앞 벤치(인벤)에서 먹거리 좌판을 열고 학생들을 반겨 주던 '인벤할머니' 서길자(78)씨가 지난 2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서씨가 평생 학생들을 만난 전남대 인벤 앞에는 그를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됐다. 전남대 재학생·졸업생 등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오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추모객을 받는다.

전남대에서 서씨를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매일같이 인벤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끌며 사과와 귤, 도넛,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모습은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 교수, 인근 주민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한때 전남대에는 수많은 노점상이 드나드었지만, 최근까지 남아 있던 이는 서씨가 유일했다.

때로 서씨는 학생들에게 과일을 무료로 나눠주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학내 동아리를 돌며 빵을 나눠 주거나, 판매 수익을 모아 전대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도 서씨와 추억이 많이 남았다. 북구 용봉동에 거주했던 서씨는 주민공동체 '마을발전소' 회원으로서 단체 고문을 맡기도 했다.

서씨가 캠퍼스를 찾아오기 시작한 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에 생계를 위해 전남대 인문대 근처에 노점상을 연 게 시작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이 불붙었던 지난 1980년에도 서씨는 이곳에 있었다. 당시 그는 학생들에게 주먹밥과 떡을 나눠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전남대에서 노점상을 몰아내려 한 적도 있었다. 이 때 전남대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민주화운동 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며 성명서를 내고 반발해 서씨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국장은 "명절 때면 서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드리곤 했다. 학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늘 감사하다며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셨다"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지만,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캠퍼스로 향하곤 하셨다"고 추억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광주모금회, 사랑의 학교모금 캠페인 성금 전달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가 최근 시교육청에서 '희망2021 사랑의 학교모금' 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학교모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광주 지역 초·중·고 32개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총 797만 5787원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 지역 저소득가정 중·고생 자녀들의 생계비, 교복 및 교통카드 구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5년연속 수협보험 연도대상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본부장 이준서·사진)는 최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2020 수협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완도금일수협은 회원조합 가운데 4년 연속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됐고, 은행 부문에서는 전남지역 금융본부가 4년 연속 단체 및 개인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협보험 연도대상 개인 부문에서는 김철진 진도군수협 과장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선대, 대학행정서비스 우수사례 시상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우수 행정서비스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유·확산 시키기 위해 최근 '대학행정서비스 우수사례 및 인증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선대 제공〉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광주시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최근 호남대 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시의사회, 광주모금회에 성금 1437만원 전달

광주시의사회가 최근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 1437만 5000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00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숨터	00 안녕? 나야!(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하니와 숲속친구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재)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네모세모
1	00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나의 살던 고향은(재) 55 한국의 인류유산(재)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00 뉴스브리핑
3	10 역사저널 그날(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X 수상한 의뢰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안녕? 나야!	20 오! 주인님	00 나의 판타집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트롯 매직유랑단	30 라디오스타	3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20 스튜디오 K 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오! 주인님(재)	05 나이트라인 35 닥터 365 40 열린예술무대 뒤란(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6:50 다큐 오늘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출동! 슈퍼윙스
08:45 뭐든지 뮤직박스
09:00 시몽
09:15 봉구야 말해줘2
09:30 몰랑
09:40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4:10 EBS 다큐프라임
15:05 지식채널e
15:15 클래스 e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5:50 가만히, 10분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6:15 개구쟁이 조이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7:00 EBS 뉴스
17:20 마샤와 곰
17:35 포텐독
17:45 역사놀이패 아리아리
18:00 생방송 방과 후 듄듄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19:35 자이언트 펭TV
19:50 가족이 맞습니다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두근두근 타이완-숨은 보물 찾기〉
21:30 한국기행 〈봄이 말하기를 3부 제주에서 살아보기〉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바닷가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1일(음 2월 19일 戊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일시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48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느니라. 60년생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니 되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72년생 꼭 만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84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입으리라. 96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 된다. 행운의 숫자 : 35, 78

丑 37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 될 것이다. 49년생 형세를 좌우할만한 열쇠를 거머쥐게 되리라. 61년생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73년생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리라. 97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되리라. 행운의 숫자 : 24, 62

寅 38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50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치워야 한다. 62년생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74년생 순기능이 극대화 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86년생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보이니 강우에 대비 해야겠다. 98년생 제반사가 불리하니 차분하게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39, 97

卯 39년생 경우에 맞지 않으면 봉패할 소지가 많다. 51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63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75년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87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라. 99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 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59

辰 40년생 타격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 52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64년생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의 이치로다. 76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쉽게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88년생 아니다 싶으면 접어라. 00년생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한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01, 75

巳 41년생 특별한 방법이라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53년생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 보충해야 할 시기이다. 65년생 빠짐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다. 77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89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01년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74

午 42년생 지나치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54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66년생 공전에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하였던 특이한 양상이 비친다. 78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붙을 수도 있다. 90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02년생 긴장하지 않는다면 놓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98

未 43년생 이루어지는 날이다. 55년생 복잡한 성향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재고해야겠다. 79년생 귀인으로부터 절실했던 당해 사항에 대해 은혜를 입게 된다. 91년생 안되면 되게 하라. 03년생 특별한 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16, 57

申 32년생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에 펼쳤을 때 오히려 압축 효과가 더 커진다. 44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56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 되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 68년생 행운의 빛이 비춰오고 있느니라. 80년생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해소될 수다. 92년생 식상함에 파묻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96

酉 33년생 획일적이라면 곤란하다. 45년생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57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69년생 가 보아야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93년생 아무리 답답해도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3, 61

戌 34년생 의지가 약하다면 재물이 나갈 수도 있다. 46년생 조금만 유의한다면 미흡한 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58년생 어떤 일이든지 서로 협력해야 쉽게 이루어진다. 70년생 이루어진 바나 다름없다. 82년생 도움을 받아야만 처리 될 수 있는 일이 생기리라. 94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시키리라. 행운의 숫자 : 33, 80

亥 35년생 대손은 없을 것이니라. 47년생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59년생 정성을 다 하라. 71년생 급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83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돌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95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도다. 행운의 숫자 : 25, 99